



공정정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65-1
 ☎ 398-3620~2 FAX 398-3630

발행인: 한승호
공보위간사: 김태식

http://www.newsunion.co.kr

연합뉴스, 공정정보도 '3중망' 갖춘다

공정보도위 · 편집위 · 수용자권익위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공정정보도를 위한 '3중망(3重網)'을 갖춘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독립기구인 공정보도위원회에 더불어 '편집위원회'와 '수용자권익위원회'가 잇따라 구성된다.

개정 뉴스통신진흥법을 근거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는 사내 공정보도 논의기구이며 수용자권익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이다.

연합뉴스 노사는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용될 '룰(Rule)'에 해당하는 편집 규약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7월 말부터 시작해 현재 합의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9월 중에는 공식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편집 규약이 마련되면 연합뉴스의 편집 간부들과 현장 기자들은 매월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연합뉴스 보도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한다.

노조 측은 "편집위원회는 보도 방향을 놓고 노사가 협상을 벌이듯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도·제작부에서 일하는 선후배가 머리를 맞대고 연합뉴스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편집위원회가 보도에 관한 사내 대화 채널일 뿐만 아니라 정권이나 자본, 특정 단체 등으로부터 시도될 수 있는 연합뉴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막아내는 버팀목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또 방송사의 시청자 위원회처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대 연합뉴스의 보도방향과 콘텐츠에 대해 자문하는 수용자권익위원회도 연말께 발족시킬 예정이다.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기본 임무는 뉴스통신의 수용자가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뉴스의 편집·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연합뉴스는 연내 수용자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정관을 만들고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을 위촉해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개정 뉴스통신진흥법은 '뉴스통신은 그 보도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와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근거 규정도 각각 두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는 아울러 1998년 제정 공포된 '연합뉴스 윤리헌장'과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연합뉴스 구성원 모두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리헌장은 공정한 보도, 신뢰받는 보도, 품위 유지 등에 대한 원칙은 물론 이에 따른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보도 준칙은 언론의 자유·책임과 편집권,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 실명보도, 사생활 보호, 반론권, 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보도 관련 기구별 특성〉

기구명(성격)	기본임무	구성원	근거규정
공정보도위원회 (노조 기구)	공정보도 감시 참글상 시상	노동조합 조합원	노조 규약 (제4장 의결기구 및 위원회)
편집위원회 (법적 기구)	편집권의 독립 보도 방향에 대한 사내 논의	편집·제작 간부와 실무자	개정 뉴스통신진흥법(제18조외3)
수용자권익위원회 (법적 기구)	뉴스통신 수용자 권익보호 보도방향·콘텐츠에 대한 자문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외부 전문가	개정 뉴스통신진흥법(제18조외2)

이달의 참글상

소외계층 보호·권력 감시 기사에 참글상

연합뉴스 공정보도위원회(간사 김태식)는 8월 정례회의에서 사회부 김연정 기자의 <'구청 침묵 속 현수막광고 독점..경찰 수사'> 기사와 사회부 강훈상이세원 기자의 '檢 '천성관 폭로' 관세청 내사'의 2건을 제 157회 이달의 참글상(7월 송고분)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공보위는 '구청 침묵 속...' 기사에 대해 "쉽게 지나치기 쉬운 사안에 관심을 갖고 발품을 팔아 그 실태를 알린 기자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현수막 광고를 대체로 영세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외계층 보호라는 참글상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천성관 폭로'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상 '보복 수사' 성격이 짙은 관세청 내사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함으로써, 권력기관인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기사"라고 공보위는 평가했다.

제 156회(6월 송고분) 참글상 추천작은 없었다.

공정보도 '자유발언대' 애용해 주세요

"연합뉴스 보도나 복지에 대해 할 말은 하면서 일하세요."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인터넷 노조 홈페이지(www.newsunion.co.kr)에 '자유발언대'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제보란 성격의 이 코너에서는 공정보도나 복지향상과 관련해 고쳐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글을 올리면 다른 이용자는 전혀 볼 수 없고 노조 전임자만 내용을 읽은 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해준다. 조치 내용도 글을 올린 당사자만 볼 수 있다.

공정보도와 관련된 내용은 공정보도위원회가 사실 확인 뒤 대응 방향을 정하고, 복지와 관련된 내용도 노조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편집위원회에 바란다-3~10년 차 현장기자들 위 목소리>

“생색내기 공론은 NO! .. 내실있는 공정보도기구 돼야”

“진정한 언론이 돼 주기를”

연합뉴스가 건강한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평가자들의 보도방향에 대한 발언권 보장이 시급하다. 편집위원회가 보도방향에 대한 평가자들의 자유로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누가 겁먹어서 입이나 열 수 있을까 싶다. 익명으로 보도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집위가 되기를 바란다. - 할랄 많은 평가자

“투명한 운영이 최우선”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연합이 제일 공정하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편집위원회에서 순순히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우리 회사 분위기가 힘들것 같다. 차라리 한달 동안 있었던 보도방향과 관련된 문제점을 노조원들이 노조에 제출하면 편집위가 열리기 전(그것을 물론 익명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해 받아낸 답변도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투명성이 최우선이다. - 소통 되는 언론사에 다니고픈 기자

“중요안건 논의내용 공개돼야”

편집위원회 설치에 적극 찬성한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전후로 연합뉴스의 정부 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편집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부 논의 기구라 하더라도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이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바른생활 사나이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

편집위의 안전과 논의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내부 전용 게시판을 만들거나 소식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용 게시판에서는 익명의 댓글 달기나 토론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 편집위에 관심 많은 한 사람

“형식보다 알맹이가 있어야”

공정보도든 어떤 사업이든 하드웨어를 갖추고 행사를 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조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다. 지금 우리 회사의 문제는 사내에서도 뻔히 보이고 외부에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영진이나 편집간부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 는 것이다. 편집위나 수용자권익위를 통해 외부에서 연합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경영진이나 편집간부들에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조직내 긴장이 유지되게 하는데 중점을 뒀야한다.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도록 말이다. - 김왕짱

“허울뿐인 논의만 하면 안된다”

중대 사안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보위 차원에서 경고를 줄 수 있게 하고 경고가 세 번 누적되면 편집 책임자 퇴진을 위한 사원 신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말 보단 행동

“생색내기 아닌 매서운 채찍돼야”

편집위가 단순히 ‘우리도 공정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색내면서 얼굴 마담 노릇이나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위상에 걸맞은,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매서운 채찍이 돼 줬으면 한다. - 까뮈 마시고픈 기자

“내실있는 편집위는 마지막 희망”

구색맞추기는 경계해야 한다. 한달에 한 번씩 모여 뻔한 지적 하고, 뻔한 답변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과 사후에 안전과 그에 대한 사원들의 의견과 편집권을 가진 사측의 답변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며, 논의돼야 한다. ‘공정보도기구’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 편집위에 마지막 희망을 건다. - 편집위에서 희망찾기